



## 오이의 신 전정법

**일** 본 사이다마현내의 오이 정지법이 적심에서 넝쿨 내려트리기 재배로 이동하고 있으나 현 농림종합연구센터가 현지 포장에서 이 재배법의 특성을 조사한 바, 월동, 축성재배에서 수량은 적심보다 다소 떨어지나 품질향상과 관리, 수확작업이 편리하다는 것을 알았다.

적심재배는 측지를 적심하면서 초세를 조절해 나가는 신정지법이다. 수량이 많아지는 장점은 있으나 초세의 저하로 수확후기의 품질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수확과의 위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걸려서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결점이 있다.

넝쿨 내리기재배는 측지를 3~4본 적심하지 않고 늘려트려서 유인, 측지를 중심으로 수확하는 방법이다. 초세는 안정되고 있으나 과실을 붙이는 측지의 수가 한정되기 때문에 수량은 극단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유인한 측지의 착과를 확인하기 쉽기 때문에 기형과의 적제가 편리하여 수확까지 고품질로 보존할 수 있으며, 수확작업도 편리하다.

## 딸기 응애 퇴치에 천적제재 사용

**환** 경보전형 농업에 착수하고 있는 JA하다노에서는 딸기시설에서 점박이 응애의천적인 '칠레이리응애'를 포함한 제재 "스파이텍스"를 살포하여 효과를 조사하고 있다. 농약·화학비료의 사용을 경감하려고 하는 시도로 효과가 높은 것이 실증되면 차후 다른 농가에도 보급할 생각이다.

JA관내에서는 이미 "유인구제형 성페르몬 테이프"나 "교신각란성 페르몬제", "온탕도양소독"등 여러가지 환경친화적인 방식이 실험되고 있다.

이번의 "스파이텍스"는 점박이 응애의 천적 "칠레이리응애"를 포함한 제제로서 500ml당 2,000마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일회의 방식을 실시했으며, 칠레이리응애는 점박이 응애가 내는 실에 의존하여 응애를 발견하여 포식한다. 스스로 이동하게 하는 것으로 점박이 응애가 증식하기 전의 저밀도에서 발견되기 시작할 때에 살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 벼 유전자 지도 제작

**일** 본 농업생물자원연구소는 농림수산첨단기술 연구소와 공동으로 벼의 유전자 가운데 6,591개에 대하여 12개가 있는 염색체상의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가를 나타내는 유전자지도를 제작했다고 발표했다. 장래 벼의 형태나 품질, 내병성등의 형질을 조사하거나 유용종 개발 등에 이용이 기대된다.

농업생물자원연구소가 '91년부터 착수하고 있는 벼 게놈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종자의 형성등 벼에 발현하는 유전자는 약40,000개가 존재한다고 추정되고 있으

나, 두 연구소는 「니혼바레」의 DNA해설에서 염기배열이 같은 유전자를 약8,500종류로 그룹화하여 그중에 6,591개에 대하여 염색체상에 나열하였다.

염색체지도에 의하여 12본의 염색체상의 유전자 분포는 같지 않고 각염색체의 양끝에 고밀도로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도는 미국식물생리학회가 최근 발행하는 「플랜트 셀」3월호에 게재되는 것이외에도 생물자원연구소의 홈페이지에서도 소개되었다.

자료 : 일본농업신문